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성모기사

11



11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1월을 시작하며	02
김용기	
생명의 나무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08
한규희	
프란치스칸 영성 - 평화	11
최우식	
죽어 간 생명	14
박영철	
말씀묵상	16
최창원	
가을 구름	18
김종국	
타밀나두 에이즈센터	20
신재희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30
이신형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36
권정대	
공동체 파견생활을 돌아보며	48
서상원	
함께하는 이모저모	52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란 기념 일대송)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11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어디서 본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젠가 “나는 하느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라는 묵상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하신지요?”

하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흔히 인생이 허망하다고 합니다. 코헬렛(전도서)에서는 세상만사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라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나무들도 가을이 익어갈수록 여름의 찬란한 기억들을 뒤로 한 채, 하나둘씩 물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까지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무수히 많은 죽음을 대면합니다. 저 역시도, 알고 지내던 이들의 죽음을 겪기도 했고, 사제가 된 후에는 많은 장례미사 안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대면하면, 삶의 허무함과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같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무수한 죽음을 만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과 관계 맺은 정도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다르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 혹은 내가 알던 이들의 죽음 앞에서는 새삼 다른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신학교 시절 어느 교수신부님께서, “독일어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가장 큰 이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이별 가운데 가장 “큰 이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는 많은 죽음, 혹은 이별이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쓰던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살던 곳을 떠나기도 했으며, 또 가깝게 지내던 이들과 이별했습니다. 어떤 이별은 관계의 소원함으로, 또 어떤 이별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별들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나 역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고 내가 아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이든, 혹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의 죽음이든 결국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갖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영성상담으로 유명한 포웰 신부님의 글에서 어떤 청년과 나눈 대화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불치병에 걸려서 20대의 나이에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신부님은 그에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은지 물었는데, 그 청년은 “일찍 죽는 것보다, 오히려 삶을 낭비하는 것이 더 슬픈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공감미 가는 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그 길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내 앞에, 혹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더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 역시도 언제 그들에게서 떠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제품을 받고 1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병원 원목실에서 사도직 실습을 했었습니다. 봉성체와 예비자 교리를 주로 했었는데, 가끔은 봉성체를 하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후회스러운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회들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화해하지 못했던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준 것들에 관한 후회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할 거리를 조금은 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지

고, 또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죽음은 이렇듯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아직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신앙인에게서는 하나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주일미사에서 신앙고백을 할 때, “통공의 신비”를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스스로도 신앙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지상교회, 연옥, 천상교회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기도에 힘입어서 연옥 영혼들은 천상교회로 갈 수 있고, 천상교회의 영혼들은 지상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 돕는 것…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내가 큰 사랑을 베풀었다 하더라도(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만…)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는 생전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만약 죽음이 정말로 모든 관계의 끝이라면 그

아쉬움과 후회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부족함을 기워 닳을 수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 기도하거나 대사를 양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령성월은 말 그대로 영혼들을 위로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위령성월을 맞아서 연옥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듯, 내가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기도의 의미”에 더 맞갖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위령성월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죽음에서 삶을 배우고, 죽음을 통해 삶의 결실을 함께 맺어가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규희 보나벤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생명의 나무를 통해 열두 가지의 한없이 감미로운 열매들을 얻게 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열매들은 성령 안에서 더욱더 알차게 영글어갑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에 달린 열매들의 맛을 올바르게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성부께 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친절하신 성부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성부의 유일한 아들인 당신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부의 풍성한 부의 보고로부터 당신 안에 충만히 부어져 있는, 일곱 가지 은총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의 그 맛을 통해 참으로 당신 자신이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질 수 있도록
이해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친절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친절로 채워질 수 있도록
경건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악에서 멀어져
당신 위엄의 두려운 권능에 의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두려움의 은사를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청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십자가의 이름으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당신께 이것들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광과 영예와 감사.

모든 광휘와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프란치스칸 영성 - 평화

최우식 프란치스코

평화에 이르는 길

프란치스코가 자신을 내어 주고 사랑을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을 때, 지구는 그의 집이 되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형제자매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주위와 그 안에 있는 세계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진실로 겸허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지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았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은 그가 평화를 지향하는 원천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가난 부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만민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평화였다. 평화를 선포하고 이룩하는 것이 프란치스칸 선교 사명의 본질인데, 이는 모든 덕행의 근본으로서 가난을 따름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평화를 전하고 이룩하기 위해서 복음을 원천으로 하고 복음에서 밝혀진 가난에 근본을 두었으며, 이 가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하여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즉 평화에 이르려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사랑,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평화에 이를 수 없음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길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만 55세 이하, 성실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모임 일자

비 안 네 회: 매월 둘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보나벤투라회: 매월 둘째 토요일 09:00 ~ 14:00 (점심, 미사포함)

콜 베 회: 매월 셋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요 셉 회: 매월 셋째 토요일 10:00 ~ 15:00 (점심, 미사포함)

● 장 소: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내 안토니오 회관

● 전화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의 가능)

죽어 간 생명

박영철 요셉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는 것이다.

어머니의 태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산산이 찢기어 죽어 가는 생명,
어머니의 태에서 이 세상에
첫 얼굴을 내미는 순간 죽어 가는 생명,
새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고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생명,
이 세상의 악을 모르는 채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놀다가
유괴되어 죽어 가는 생명,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 환각제를 마시다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생명,
대학에 불합격했다고
투신 자살하고, 약을 먹고 죽어 가는 생명,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식 하는 첫날
교통 사고로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생명,
정의를 부르짖다 자기 몸을 던진 생명,
용돈이 필요한 아들의 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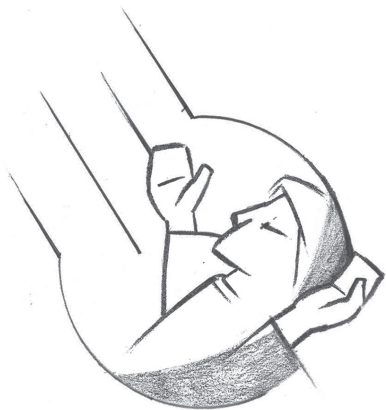
죽어간 부모님의 생명,
 삶에 지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자녀들의 생명,
 돈에 눈이 어두워
 남편의 손에 아내가,
 아내의 손에 남편이 죽어간 생명,
 지하 철도의 작업 중 가스 폭발,
 기차가 지하로 매몰, 다리의 붕괴,
 백화점의 붕괴, 배의 전복,
 비행기의 추락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한다.
 나의 원의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늘 우리의 실체 뒤에 숨은 그림자,
 이 그림자를 되살리기 위해
 온갖 과학, 의학이 동원된다.
 이러한 인간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곁을 떠난다.
 죽음이 가족들에게 주는 고통
 그들의 마음 또한 그 희생자들과 함께 죽었으리라.

죽은 모든 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기 바라며...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헌 기념 영성체송)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위령의 날 입당송)

가을 구름

김종국 요셉

산야를 돌덩이처럼 굳게 한 긴 가을
백 년 만에 찾아와 대지를 태웠던 폭염

그 힘들었던 여름이 태풍으로 물러나
가을이라 서너 번은 불렀더니

산 속에도 웅크분긔 모든 깊은 가을은 어김없이 맞이한 늦은 오후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오다
햇빛에 파스히 데워진 널따란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네.

땀 뚝린 듯한 청명한 하늘에 작은 구름이 한 줄씩 날아가고

땀 흘리며 수확하는 농부들의 구릿빛 얼굴 되어
산봉우리를 향해 흐르는 구름

눈은 깊은 어미의 손을 놓고
흐느껴 울며 헤어지는 모자간의 이별구름

팔 다리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 우는 눈물구름

살 곳을 찾아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저 돛단배구름

아! 저기 기적처럼 구름이 만들어지네.

제대에서 장백익을 입고 강복을 주시는
신부님 모습의 구름이 대지를 향하네.

가난하고 힘들고 수고하는 사람,
주님께 은총을 간절히 비는 겸손한 사람,

불 태워도 아무 말 없이 다 내어주는 자연에게 강복을 주시네.

주님께서 창조물들을 오늘도 굶어 살피시네.

제 할 일을 다 했다 나무와 이별하고
아쉬움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뭇잎들

바람결에 날아와 내 얼굴에 앉으니
이대로 낙엽에 덮이고 싶어 두 눈은 감네.

타밀나두 에이즈센터

신재희 베드로

빨간 리본

타밀나두에 위치한 아시시 스네하라야 에이즈 센터 현관에는 빨간 리본이 그려져 있다. 빨간 리본은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에이즈 치료와 예방을 상징한다.

빨간 리본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1.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
2. 치료제 개발과 감염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
3. 에이즈 예방과 치료,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인과 학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후원자에 대한 지지

이 빨간 리본이 그려진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센터의 가장 중앙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십자가는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즉, 십자가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는 감염인이든 비감염인이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

로 살아간다.

타밀나두 에이즈 센터에서의 시간은 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나가는 시간이었다.

아비타의 돌잔치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센터에서 가장 어린 아비타의 돌잔치가 있었다. 중앙 홀에 요람을 두고, 조명을 설치하고 풍선을 붙여 장식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돌잔치를 하였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하였다.

내 방은 중앙 홀 바로 맞은편이라 창문을 열면 나무가 있고, 잔디로 덮여있는 정원이 보인다. 맞은편에는 남자 병동이 있고, 그 옆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병동이 있다. 아침 미사와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 전 활기찬 아이들이 정원으로 뛰어나와 놀기 시작하는데, 창문을 열어두면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내 방 창문 밖에 모여 앉아 더 재미난 것을 찾는 듯이 함께 놀자며 손짓한다.

이곳에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9살, 7살 남자아이 산토스와 조이스, 12살, 10살 자매 수미트라와 수지트라, 7살 여자아이 아쉬, 1살의 아비타가 살고 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다. 양동이에 물을 길어 정원 나무에 물을 주고 있으면 언제나 달려와 일을 거들었던 산토스와 조이스, 행사가 있는 날이면 항상 앞장서 인도 전통춤을 추었던 수미트라와 수지트라, 하루에 꼭 한번은 수녀님께 배운 영어를 나에게 써먹던 아쉬, 아쉬는 등에 아비타를 업고 언제나 나에게 귀여운 미소를 건넨다.

하루의 일과

한 달의 시간을 에이즈 센터에서 보냈는데, 이곳의 일정은 이러하였다.

6:00 성체강복과 아침 성무일도

(에이즈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수도원에서 거행)

7:00 센터에 있는 경당에서 수녀님들과 형제들과 함께 미사

7:30 환자들 식사를 챙긴 후 아침 식사

9:00 청소 및 오전 일과 시작

10:30 간식과 차를 마시고 다시 오전 일과 재개

12:00 낮 성무일도

12:30 환자들 식사를 챙긴 후 점심 식사

15:30 오후 일과 시작(외부작업)

16:30 간식과 차를 마시고 빨래하기

17:00 화단과 나무에 물주기

18:45 저녁 성무일도

19:00 강당에서 환자들과 함께 묵주기도

19:30 환자들 식사를 챙긴 후 저녁 식사

일과를 마치고 강당에 모여 다 함께 묵주기도를 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린다.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는 언제나 나에게 힘을 준다. 비록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 할지라도... 성모님은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주신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문단속을 위해 정원을 걸어와 대문을 닫을 때면 그 시간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한낮의 더위를 깨끗이 잊게 해준다. 밤하늘의 별은 또 어찌나 초롱초롱한지 이곳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닮았다. 하루의 소소한 행복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이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다.

간니 아저씨의 죽음

아침 식사가 끝나고 샤이주 수사님께서 차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 센터는 조용해진다. 수녀님, 형제들과 함께 병실을 도는데 며칠 사이에 간니 아저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계속 배는 부풀어 오르고 눈의 초점도 흐릿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것과 보온물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목마를 때마다 물을 식

혀 몇 모금씩 주는 일뿐이었다. 그 조그마한 일에도 고맙다며 힘없는 손짓으로나마 인사를 해주었는데, 힘이 다 빠진 앙상한 팔은 간니 아저씨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날 새벽 1시, 남자 병동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아무래도 며칠 전부터 상태가 나빠지고 있던 간니 아저씨 때문인 것 같았다. 화살기도를 드리고 책상에 앉아 묵주기도를 바쳤다. 간니 아저씨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느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기를 기도드렸다.

새벽 시간이 흘러 미사하기 전 간니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 수녀님과 형제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침대 시트를 빨고 병실을 청소하였다.

날이 밝은 아침, 아이들은 뭐가 그리 기쁜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원으로 뛰어나와 놀고 있었다. 나도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우리 삶 속에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새벽녘까지 길기만 했던 그 시간, 한 사람을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이는 하루를 또다시 살아간다.

하느님은 이렇듯 세상과 하늘을 경계해두셨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와도 같다. 훗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알

게 되리라... 간니 아저씨의 죽음으로 슬펐지만,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해 신나게 놀아주었다.

작별

형제들과 수녀님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가졌다. 차이스 수사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였다. 메뉴는 맛있는 생선요리와 파스타였다.

떠날 날이 왔을 때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성체강복과 함께 아침성무일도를 하고, 미사 후 아미라즈와 토마스 아저씨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토마스 아저씨는 감기에 걸려 따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오전 청소 후 짐 정리를 하고,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챙긴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엘리야 수사님께서 버스 시간을 알아봐 주셔서 지빈 형제와 함께 버스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점심식사 후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토마스 아저씨가 예기치 않게 병동 복도까지 걸어 나와 나를 불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다 큰 어른의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 눈물이 이곳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잠겨 있는 철창 사이로 서로 악수를 하고 토마스 아저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수사님들이 설명해주었는데, 토마스 아저씨는 그렇게 몇 달씩 머물다가 간 형제를 붙들고 자주 온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토마스 아저씨가 눈물을 흘렸던 모습과 함께 철창 사이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장면이 인도관구본부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코페르티노 성 요셉 수도원

인도관구 본원으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안드라프라데시 주로 이동할 준비를 하였다. 수련기를 마치고 수습기간 중인 소누 형제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차를 탄다고 했다. 그래서 인도 기차여행의 선배(?)인 내가 나서서 예매를 하고 자리를 찾고 기차에 올라서는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짜이와 사모사를 시켜 먹었다. 외국인인 내가 소누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재미도 있었고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코페르티노 성 요셉 수도원에 도착했다. 수도원 형제들은 백승재 베네딕토 수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수도원 머릿돌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백승재 수사님께서 FAMC(아시아 선교담당)지역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심을 알 수 있었다.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모든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수도원을 돌보신다는 생각에 한국 관구에 서 온 나로서는 매우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의 원장직을 맡은 다미안 수사님은 앞으로 인도관구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 두 개의 관구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이곳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또 하나의 관구본부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코페르티노 성 요셉 수도원은 소신학교와 대신학교가 함께 있는데, 34명의 소신학생, 11명의 대신학원 형제 그리고 3명의 사제가 살고 있다. 대신학원 형제들은 8명이 철학 과정에 있고 3명이 신학 과정 중이다.

대신학원 형제들은 모두 남인도 케랄라에서 공부해온 형제들이다. 그래서 ‘말라얌’어를 사용한다. 소신학생들은 이곳 안드라프라데시나 오리사 두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 언어 ‘텔루구’와 ‘오리사’어를 사용하였다. 다른 지역의 언어로는 서로 소통이 어려워 생활

언어와 기도는 영어를 사용한다.

소신학생들은 이곳을 졸업하면 앞으로 남인도 케랄라로 가서 수련기에 들어가게 된다.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수도원

다미안 수사님과 시빈 형제와 함께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여 도착한 곳에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수도원이 있었다. 그곳에 재인과 제임스 수사님이 거주하고 계셨는데, 함께 인사를 나누고 다음 날 주일미사에 함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인 수사님께서 공소미사도 같이 가자고 제안하셔서 받아들였다.

‘텔루구’어로 드려지는 미사이기에 근처 신학대학에서 부제품을 받은 카푸친 수사님이 주일마다 이곳으로 사목 실습을 와서 복음을 봉독하고 강론을 하고 있었다. 수도원 미사가 끝나고 난 후 시빈 형제와 함께 신자들에게 안수하였다. 시빈 형제는 나에게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살며시 신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오후에도 근처에 있는 공소에서 미사를 하고 신자들에게 안수를 주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수도복을 입고 함께 제대에 올라 미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낯설었다. 그래도 전통에 따라 주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르는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미사 후에 신자들에게 안수를 주었다.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에는 나와 내가 안수하는 이를 축복하여 달라 기도하였다. 안수를 받은 이들은 수도복 옷자락 혹은 수도복 끈을 잡거나 내 발등에 손을 대었다. 처음으로 접하는 이런 경험들 안에서 많은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공소에서든 미사를 마치고 안수를 줄 때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느낄 수 있었다.

‘저의 옷자락을 잡는 이들, … 주님 저에게 오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께 청하오니 저와 여기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 유치원 -

이신형 요셉

이제 네 살밖에 되지 않은 원생이 어여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부-원-장, 선-생---님, 그네 밀-어 주-세-요!” 그러자 또 한 편에서 지지 않을 세라, “저, 여기 오르는 거 봐 주세요!” 이번에는 내 손을 잡아 끌며, 다른 원생이 “술래잡기해요, 부-원-장, 선-생---님이 술래예요.” 한다. 정신 없이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면, 어느새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사제서품을 받고 첫 임지 발령이 날 때, 소임 중의 하나로 유치원 부원장도 포함될 뻔했다. 그때의 솔직한 내 심정은 “아니,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어려워하는데 어쩔 셈이지? 내 적성을 제대로 보고 계시긴 한가?”하며 당황했었다.

나는 아이들이 어려웠다. 신학생 시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접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고, 무언가 말을 걸어 오는 것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하는 일본어가 늘어지고 어눌한 탓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접하는 만화와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니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 소통이 쉽지 않았다. 그냥 알아 들은

척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화제를 가지고 다시 되물어 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마음이 급하곤 했다.

일본 대부분의 성당은 유치원을 함께 경영하고 있었고, 그 역사도 오래되었다. 많은 일본인이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성모송을 암기했거나, 성탄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해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동경 야스쿠니 신사 바로 옆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문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 역시 수녀님들이 경영하고 있는 곳이다.

다만 최근에 유치원 교육을 통해 그 부모나 원생이 세례를 받는 일은 드문 일이 되었다. 대신 명문 유치원에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가톨릭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패션처럼 브랜드로 받아들여 지는 듯 했다.

우리 수도회도 각 성당에 부설 유치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발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아시에서 돌아오고 나서 받은 여러 개의 소임 중에는 유치원 부원장 자리도 있었다.

성모기사 히가시-나가사키 유치원에는 약 250명의 원생이 있다. 내가 아이들을 접하는 시간은 아이들의 등교시간인 9시에서 10시 수업시간 전까지, 세 대의 유치원 버스가 3번 왕복을 하면서 아이들을 태워 나르는 한 시간 동안이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복에서 놀이옷으로 갈아 입고 유치원 운동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공 차기, 술래잡기, 소꿉장난, 그네타기, 곤충 잡기 등을 하며 운동장의 모든 것이 아이들의 놀이 대상이 된다. 나무, 흙, 공기, 잠자리, 지렁이까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발동한다. 때로는 그룹을 만들고 규칙을 세워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 버린다.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나, 끼워 줄래?”라는 주문 같은 말을 걸고, “그래, 좋아”라는 답을 받아야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운동장 중앙에는 유치원 제일 고학년에 남자 원생들만 모여 있다. 한눈에 봐도 어쩔 수 없는 개구쟁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슬쩍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 본다. 그러자 한 녀석이 팔로 나를 치기 시작한다. 그러자 아이들이 나를 둘러 싸기 시작하더니, 다들 팔로, 주먹으로 발로 차기 시작한다.

아뿔사... 후회한들 이미 늦어 버렸다. 아이들에게 있어
짓곳은 놀이는 빠르게 전염이 되어 퍼지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사태 수습에 나서지만 의기양양 상승세를 타기 시작
한 아이들을 제지하기에는 많이 늦어 버렸다. 웃으며 아
이들을 말려 보고, 타일러 보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급기야 한 원생이 흙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며 혼을 내기 시
작했다.

크게 화내는 소리에 아이들이 조금씩 제지가 되기 시작
하는데, 한 아이만 웃음을 멈추질 않고 여전히 내게 도전
을 해 온다. 그 아이의 팔을 잡고 무섭게 혼냈는데, 그 아
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날 나는 온종일 우울했다. 예의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았
던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른 말을 전혀 듣지 않
았던 그 아이는 왜 그럴까?

유치원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 아이는 원래 문제가 있던
아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착한 아이이기는 한데, 감정 조
절이 되지 않아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마음에 멍이 되어 버린 그 일.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라면 잘 대처하거나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고 마음을 다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은 오랫동안 큰 숙제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래된 20년도 더 된 일이 떠올랐다. 그 옛날 내가 지금 유치원생보다도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때, 나는 외삼촌에게 지금 그 아이들처럼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그러면 외삼촌이 내 발을 잡고 거꾸로 세워 빙빙 돌리기도 했고, 또 나는 재미있어서 다시 육탄전을 시작하기도 했다.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동심의 세계, 아이들의 세계, 그리고 그 아이들만의 생각들...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난 네가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어’라는 아이들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겨우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1년 반이 지났다. 이제는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원생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그 또래의 아이들만 보아도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피어 오른다. 아이들의 귀여움이 이제서야 눈에 밟히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무럭무럭 자라기를 매번 기도 드린다.

1년내내 나를 멀리했던 ‘사야’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원생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어 왔을 때는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기뻐다. 사야는 “아씨는 저 쪽에 가 버려!”라는 말로 나와 관계를 좁혀 주었다. 이제는 제법 말다운 말을 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며 나를 놀리고 도망가기 일쑤다. 모든 아이가 성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유치원,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권정대 베드로

수도자로서 부제서품을 받고, 혼자서 유학을 떠났던 저로서는 본당에서 보좌신부 생활을 최소 1년 이상 하다가 유학을 오는 교구 사제들과는 달리 아무런 인맥이나, 연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8개월간은 세라피쿰 신학원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언어 학원을 다녀오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저를 주님께서 돌보셨기에, 다른 나라 형제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학 오면서 다니고자 했던 학교(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일반 영성 신학부) 생활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프랑스 형제 토마스 수사님(Fr. Thomas Bourquerod)과 함께 같은 학교 심리학과에 다니던 대구대교구 황은모 요한 신부님을 처음 만난 인연으로, 같은 건물에서 공부하는 영성 신학부 한국인 신부님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연은 아우구스티아눔 학교에서 교부학을 공부하던 케냐 형제 바오로 수사님(Fr. Paul Kiarie Njuguna)

을 통해 로마에서 산지만 10년이 되는 대전교구 김누리 미카엘 신부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로 로마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신 신부님의 자상한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언어 공부를 하고, 학교를 준비하면서 막막하기만 했던 제 앞길을 훤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인연들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영성 신학부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의정부교구 김동규 바오로, 안동교구 남상우 토마스 모어, 서울대교구 최정훈 바오로 신부님들을 비롯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던 대구대교구 정창주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만나 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 수업과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을 얻었고, 정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학기를 다니던 두 분 신부님들(토마스 모어, 바오로)과 각별한 인연을 맺으면서, 첫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세라피쿰 신학대학교에서 미리 두 과목을 청강했었지만, 설레고 두려운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만난 교수님들의 나라와 성향, 각기 다른 특성의 목소리로 인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구사하

는 고급 단어, 처음 접하는 빛의 속도(?)의 말쑥은 앞으로의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수업을 늘 녹음하여야 했고, 선배 신부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수업에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인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신학생, 수도자, 사제들이 함께 이탈리아어로 수업을 듣고, 대화를 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체험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적을 뛰어넘는 친교와 형제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수업 과목이 기존 과목에서 5과목이나 늘었다는 자못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국 신부님들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었기에 현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저는 이와 더불어 학교 수업을 이탈리아어로 따라갈 수 있는지 검증하는 언어시험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언어공부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

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늘어난 과목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이수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7과목을 신청했습니다. 공부와 수도생활과 더불어 세라피쿰 신학원에서 콜로세오를 거쳐 수도회 총본부 근처에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교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번 통학하는 일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언어 검정 평가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앞서 시험을 보았던 형제들의 조언과 응원에 힘입어 시험을 치게 되었고, 다수의 객관식 문항과 단답형, 서술형 문항까지 1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은 손에 땀을 쥐게 하였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어려운 시험 이후, 이탈리아 선생님과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구두시험까지 보고 나서야 시험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시험 이후 콜로세오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올수 3회 수도회가 맡고 있는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 (Basilica dei Santi Cosma e Damiano)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겪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서 늘 함께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우연히도 신학원장님과 함께 아시아 형제들과 저녁 식사를 약속했던 날이라, 미사 이후 찾아간 식당에서 형제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원장인 폴란드 형제 아담(Fr. Adam Maczka) 수사님은 많은 형제가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한다며, 수고 많았다는 칭찬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신학원장 수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일 년이 지나도 왜 이탈리아 말을 잘 하지 못하냐는 핀잔을 들었지요. 이 말에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틀려도 막 던지고 보자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형제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처음에는 오목조목 글을 써서 제 의견을 펼쳤지만, 나중에는 되는데로 부딪히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이 살다 보니 형제들이 제 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학원장 수사님 그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쌓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 형제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준비한 덕분인지 언어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부제서품 후 1년 지나서 사제서품을 신청하는데, 이탈리아 유학이라는 과정에서 공부를 위해 사제서품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제로서 그레고리안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제서품을 위한 양성과정을 1년 더 거쳐야 했습니다.

그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바티칸 교황청 내사원(양심의 비밀, 사죄, 면죄, 대사(大赦)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황청 법원의 하나, Penitenzieria Apostolica)에서 주최하는 고해성사에 관한 수업(제28회 특별 교회법 과정 XXVIII Corso sul foro Interno)을 로마에 있는 사제들과 부제들, 신학생들과 함께 칸첼레리아 궁(Palazzo della Cancelleria)에서 2017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1. 교회의 선교 사목 안에서 자비의 희년의 유산과 전망
(Lectio Magistralis: “Eredità e prospettive del Giubileo della Misericordia nella Missione pastorale della Chiesa”)
2. 사도적 내사원: 고해사제들과 고해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교회 법정 기관(La Penitenzieria Apostolica: un Dicastero al servizio dei confessori e dei penitenti)
3. 고해사제와 화해성사. 참회자의 의무와 권리(II Confessore e il Sacramento della Riconciliazione, Dovrei e diritti dei penitenti)
4. 징계: 올바른 사목을 위한 정체성과 전망. 고해사제와

고해자들이 주의해야 할 불규칙성과 방해물(Le “Censure”: identità e prospettive per una corretta pastorale, “Irregolarità e impedimenti” all’attenzione del confessore e del penitente)

5. 고해소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본성의 경우들의 유형학 (Tipologia di alcuni casi di natura morale che si presentano al confessionale)

6. 참회와 영적 인도의 성사(Sacramento della Confessione e Direzione Spirituale)

7. 질서를 바꿈: 전례 사목적인 측면들(L’Ordo Paenitentiae: aspetti liturgico-pastorali)

8. 고해자들의 특수한 조건들과 범주(Categorie e condizioni particolari di penitenti)

9. 젠더론, 인류학과 그리스도 윤리에 대한 도전(La teoria del gender, Sfide all’antropologia e all’etica cristiana)

사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사제 서품을 준비하면서 로마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날, 과정에 참가한 이들은 교황님을 알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교황님을 뵙는 마지막 날은 매번 가던 칸첼레리아 궁이 아닌 웅장한 강당인 바티칸 바오로 6세 홀(Aula Paolo VI)에 초대되어 교황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황님께서서는 참석자들에게 특별히 좋은 고해사제가 되기 위한 3가지 말씀을 당부해주셨습니다.

첫째, 좋은 고해사제는 무엇보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선 기도를 배양하는 일을 의미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한다.

둘째, 선한 고해사제란 성령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 받았으며,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는 사제, 곧 종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고해성사는 진정한 복음화의 장소이다. 자비의 하느님과의 만남보다 더 확실한 복음화는 찾을 수 없으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것처럼 하느님의 참된 얼굴을 만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어서 교황님께서서는 젊은 시절 읽으셨던 성 알폰소 리구오리가 쓴 마리아의 영광(Il libro di Sant'Alfonso Maria

de'Liguori sulla Madonna: Le glorie di Maria)이라는 책의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각 장마다 있는 성모님 기적 사화를 기억하시며 유머를 던지셨는데, 살아생전 도둑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모님께 기도드린다면,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밤이 되어 천국 문을 닫았을 때, 성모님께서 회개한 이들을 당신 품에 감춰서 당신만이 다니시는 다른 창문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 가운데 성모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고해자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소에 오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성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성모님께서 우리 고해사제들 또한 자비의 연습을 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성모님께 큰 감사를 드리길 권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황님께서는 삼종기도를 제안하셨고, 삼종기도 후 강복을 주시며, “도둑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라는 농담으로 모든 이에게 웃음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교황님은 연설 후, 참석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과거 교황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악수를 하였다는 형제의 말을 듣기는 했으나 제가 참석한 해에

는 너무나 많은 신학생, 부제, 사제가 왔기에 그토록 기다리던 알현을 저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황님을 더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 기다리고 다가서려 했습니다.

교황님과 악수하려는 이들 가운데 교황님 시선에 드는 이들과 짧은 인사를 하신 교황님께서 앞줄 마지막 사람까지 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던 찰나에 뒷줄에 있던 제가 빠빠 프란치스코! (이탈리아어로는 프란체스코가 맞는데, 급한 나머지 이탈리아 말과 한국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며 외치자,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교황님을 만나 뵈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짧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대단히 감사합니다”(Grazie mille)라 말씀드리고 넘죽 절을 드리는 것으로 기적과도 같은 교황님과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교황님과 손을 잡고 인사드릴 때 마르코 복음서 10장 46-52절의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눈먼 바르티매오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쳐 다시 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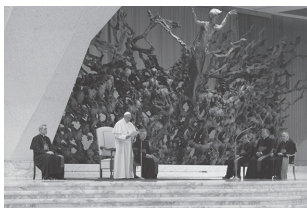
저 또한 교황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 바르티매오처럼 간절히 교황님을 외치고 그분과 악수 한번 하겠다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과 만나겠다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분을 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유학생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경험을 하였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풀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크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많은 이의 치유를 돕고, 그들을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다짐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갖가지 근심과 걱정의 매듭을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뢰로 너무나 평온하게,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풀어주시는 성모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매일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로마유학

공동체 파견생활을 돌아보며

서상원 이문우요한

수련기에 들어가기 전의 공동체 파견생활 속에서 나에게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였을까 고민해 보았다. 지나간 것은 기억 속에서 숙성되어 또 하라면 어쩔지 몰라도 일단은 즐거웠던 일이라고 바뀌어 기억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일하는 매순간순간이 즐거웠었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이를 꼭 부정할 생각은 없다. 실제로 그 순간에는 그 상태로 다음날도 계속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힘들고 아프기도 했다.

그래도 (추억보정이니, 미화 등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 남는 것은 땀 흘려 일하던 순간이기 때문에 일하는 순간들이 즐거웠다. 놀면서 즐거웠던 순간도 물론 있지만 그것들은 생각보다 시간에 퇴적되어 금방 흘러가 사라지는 반면, 일하던 순간과 그로 인해 얻은 노하우는 평생을 걸쳐 따라간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50도가 넘는 식초 발효실에 들어가
기 위해 옷통을 벗고 뛰어 들어가서 일하다가, 숨이 턱 밑
까지 차올라 열을 좀 식히기 위해 나가서 바람을 몇 초 맞
으며 온 몸에서 김이 나는 것을 구경하다가, 또 추워져서
다시 후다닥 들어가게 되는 등 그동안 살면서 해보지 못했
던 체험들을 기억이라는 녀석은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 순
간순간의 어려움을 잘라 모아 즐거웠던(?) 추억으로 가공
해낸다.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사실 시간이 흘러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도 그러한
자신의 업적이 쌓이고 쌓인 힘든 순간이 아니겠는가. 즐
거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인들이 느끼는 주말의 흘
려감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평범한
하루하루다.

고단하고 괴로운 그 순간이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숙성
되어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
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남자끼리 만나면 군대 이야기가 빠
지지 않듯 꼭 그런 것만은 아닌듯하다.

겨우내 만든 식초를 생각하며 생각에 잠기면 함께 땀 흘
리며 일하던 그 때 순간이 시간이 지나며 숙성이 되고 식
초의 원료에서 내용물이 우러나오듯 기억은 필요한 것들
을 걸러내어 시큼한 향을 풍기는 식초로 만들어간다. 새콤

한 맛이 참 사람을 오묘하게 만들듯 맛을 보면 결코 맛있다고만 하기는 힘들고 냄새도 코에는 거시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에 좋다.

추억이라는 것이 꼭 그러하다. 긴 시간동안 내리는 눈을 치우느라 팔에 경련이 일어나는데도 그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어 접시를 들기도 힘든 팔을 부여잡으며 밥을 먹었던 일, 지하수가 얼어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그러한 순간들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던 일과 더불어 섞이고 덧씌워지며 나의 추억으로 만들어진다. 방학이 끝나고, 동기들과 누가 더 힘들었는지 떠들 때 비로소 그것들이 실감이 난다.

기억이란 그래서 더 알궂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순간 흘러던 아픔과 땀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즐겁던 순간을 추억하며 힘들 때를 지내면 그때가 좋았지... 라며 마냥 생각하게 되지만 힘들던 순간이 떠오르면 그때도 해냈는데 지금은 또 못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는가.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은 그렇게 퇴적된 나의 매 순간의 기억 속에서 우리나라와 추억이 되고 그것들이 걸리며, 숙성되어 아프고 또 하기에는 싫을 수도 있지만 추억으로,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시큼털털하고 새콤달콤

한 맛을 내어가며 우리의 삶을 장식하고, 앞으로의 양분이 되어준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은 어두운 미래를 나아가는 양분이 되고 마침내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즐거이 살다 왔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회헌 개정을 위한 특별 총회



201차 특별 총회가 7월 24일부터 8월 26일 까지 이탈리아 네미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선교회 “ad Gentes”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회헌 개정을 위한 이번 총회에서는 총장 Marco TASCA와 총참사위원들을 포함해서 64개국에서 모인 112명의 수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관구에서는 관구장 정진철 마르코 수사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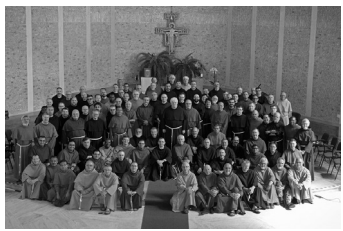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총회에서 의안집의 620개 항들을 하나하나 읽고-묵상하고-토론하고-투표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모든 제안된 문구를 읽고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률위원회는 법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특별 총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남겼습니다.



“새 회헌은 예수님과 프란치스코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

결하고 가난하며 순명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선함, 형제애의 즐거움, 선교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카리스마를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수사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과 점차 일치를 이루게 되는 우리의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들이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 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유언 14)

아시시 세계 청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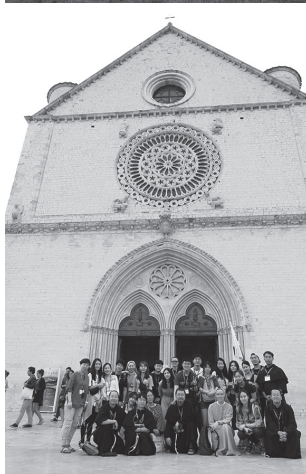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세계 청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곤벤 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님들과 아씨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수녀님들과 함께 20여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과 회개했던 곳 그리고 은둔소 등을 방문하면서 부유한 집안에 살았던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회개의 삶을 선택했는지 보고 느끼면서, 대회에 참석한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삶에 있어



남아있는 여정의 빛을 하느님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
취가 생생한 현장 아시시에
서...

그의 삶과 영성을 느끼며
만들어가는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우정의 시간!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신앙의 빛 안에 하나되는 일
치의 시간!

“Made to Shine, The
beauty of holiness...”



8th
International
Youth
Toward Assisi
Meeting

12-19 August 2014
아시시 세계청년대회

Made to Shine
the beauty of holiness...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라,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최: 가톨릭청년회
www.catholicyouth.org
www.assisi2014.org

PROGRAM SCHEDULE

1. 8월 12일 (토) 아시시 성당에서 개막식 (10시)
2. 8월 13일 (일)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3. 8월 14일 (월)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4. 8월 15일 (화)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5. 8월 16일 (수)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6. 8월 17일 (목)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7. 8월 18일 (금)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8. 8월 19일 (토) 아시시 성당에서 미사 (10시)

인천지구 소식



9월 1일 성모기사회 인천 지구는 토요일 신심 미사와 함께 지구 담당 이진훈 코페르티노 요셉 신부님의 축일 축하식을 가졌습니다. 미사 후에는 축일 잔치를 통해 프란치스칸 형제애를 나눴습니다.



인천지구는 미사 참석 인원이 항상 100여명을 넘어서며, 성모님을 위해 자신을 봉헌한 임원진과 회원들의 열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들의 신심이 변치 않도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은 사무실(02-745-6134)로 전화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 2) 매년 신청하시는 분은 작년에 신청하셨음을 말씀해주시고 성함, 연락처, 금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3) 재속프란치스코회 서울지구 보나벤투라, 비안네, 요셉, 콜베 형제회원은 단위형제회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4) 서울 한남동 수도원은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0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11월 통권 502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당신은 고요이시나이다.” (하느님 찬미 8)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